

정신화(mentalization) 개념을 통한 애착 이론과 정신 분석의 재조명: 정신화의 경험적 기반과 측정의 임상적 함의

차 혜 명

김 은 영[†]

경북대학교

정신분석과의 관계에서 볼 때, 애착이론의 시작과 발전은 그 자체로 역설적이라 할 수 있다. Bowlby의 애착이론은 '정신 내적 세계'와 '표상으로서의 어머니'에 집중하고 있던 Kleinian 정신분석학적 전통에서 잉태되었지만, 이러한 전통에서 떨어져 나와 또 다른 경험과학, 즉 '외부 세계'와 '실제 어머니'에 주목하는 발달심리학의 주요한 하나의 거점으로 자리잡았고, 나아가 작금의 경험 과학(empiricism)적 심리학의 풍토에 성공적으로 안착하였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현대 애착 이론을 대표하는 Fonagy는 '실제 현실'의 경로를 추적하던 애착이론의 경험적 연구들이 거듭된 수정과 재수정을 통해 '표상으로서의 내적 세계'에 접근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와 같이 정신분석적 시각에서 애착 연구의 성과를 재해석하고, 결별한 두 이론적 흐름을 재결합시키는 Fonagy의 이론적 시도는 정신화 개념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본 논문은 먼저 Fonagy의 정신화 개념 및 애착이론의 수정된 가정인 상호조절(mutual regulation) 개념을 정신분석적 전통과의 대비선상에서 조명하고, 정신화 개념을 뒷받침하는 신경생물학적 연구들을 개관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정신화의 조작적 측정 도구로서의 성찰 기능 척도를 개관하고, 근거 기반 치료(evidence-based treatment)라는 최근 흐름에서의 임상적 함의와 국내 상황에서의 시사점을 탐색한다.

주제어 : 정신화, 애착이론, 정신 분석, 성찰 기능, 성찰 기능 척도, 정신화 기반 치료

[†] 교신저자: 김은영, 경북대학교 교육학과 조교수,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사범대학 신관 411호
Tel: 053-950-5809, E-mail: hyunhuk@knu.ac.kr

정신분석과 애착 이론 사이에는 오랜 반목(bad blood)이 있다(Fonagy, 2001, 1쪽).

애착 이론과 정신 분석 간에는 보이지 않는 반목과 골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깊은 골은 애착 이론이 대상관계(object relations)적 관점의 정신분석학에서 출발하였지만, 양 진영의 문헌에서 서로에 대한 언급을 좀처럼 찾아볼 수 없다는 기이한 사실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근래 정신분석학과 정신역동적 심리학이 보여준 2인 심리학(two-person psychology) 혹은 관계적 욕구(innate needs for relationships)(Mitchell & Black, 1995) 수용이라는 변화는 또 다른 축의 변화, 즉 애착 이론이 자신의 오랜 가정인 어머니의 민감성(maternal sensitivity)에 대한 일방적이고 기계적인 해석을 탈피하고자 보여준 전체적 궤도 수정과 맞물리면서, 흥미로운 접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 두 진영의 만남은 Fonagy의 정신화(mentalization) 개념을 통한 애착이론과 정신분석과의 이론적 접점에서 보다 극명하게 드러나며, 나아가 애착 이론을 충실히 계승한 Fonagy가 현재 영국의 안나 프로이트 연구소의 소장을 역임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재확인되기도 한다.

그러나 애착이론과 정신분석 간의 반목과 조우에는 보이지 않는 현실적 압력, 즉 모든 과학을 경험적 근거에 기반하여 입증하려는 근대적 학문의 풍토, 보다 결정적으로는 최근 강화되고 있는 관리 의료(managed care) 시스템과 근거 기반 치료(evidence-based treatment)라는 커다란 사회적 압력이 존재한다. 이러한 압력은 현장에서 내담자의 고유성과 개인성을 고려하는 질적 접근보다는 입증 가능한 양적 접근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내담자와의 상담은 효과성이 입증된 매뉴얼을 충

실히 적용하는 것으로 축소되는데, 이러한 경향성은 증상의 심각성이나 회복의 속도에 대한 개별적 고려보다는 표준화된 회기 수에 따라 상담의 종결을 결정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이와 같은 표준화로의 압박이 오랫동안 경험적 연구와 거리를 두어 온 정신분석학과 정신역동적 관점의 장기(long-term) 치료(psychotherapy)와 상담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예상은 당연한 것이었다. 그와 같은 예상은 점차 현실로 드러났고, 이러한 위기에 직면하여 정신 분석학과 정신역동적 관점의 연구자들은 장기 심리 치료의 효과를 증상 감소(symptom reduction)가 아닌 대인관계 표상(interpersonal representation) 혹은 대상관계 표상의 향상으로 측정할 것을 제안하며 경험적 입증을 시도하였다(e.g., Blatt et al., 1998; Ryan & Bell, 1984). 그러나 이들의 노력은 행동주의나 인지행동주의적 치료의 효과성 연구의 방대한 규모와 양에 채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다.

반면, 애착이론은 정신분석학과는 달리, 실제 어머니와 유아의 상호 작용을 관찰하고 연구하면서 발달심리학과 임상 영역의 주요 거점으로 자리잡았고, 작금의 경험 과학(empiricism)적 심리학의 풍토에 성공적으로 안착하였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Fonagy는 '실제 현실'의 경로를 추적하던 애착이론의 경험적 연구들이 스스로의 거듭된 수정과 재수정을 통해 '표상으로서의 내적 세계'로 회귀하고 있음에 주목한다(2015). 그리고 Fonagy는 애착 연구의 성과를 정신분석학적 혹은 정신역동적 전통 내에서 재해석하며, 결별했던 두 이론적 흐름을 재결합시키고자 시도한다. 이러한 그의 이론적 시도는 정신화 개념에서 뚜렷하게 드러나는데, 그의 여정은 정신화 개념의 정립에 그치지 않고, 이를 경험적으로 측정하고

입증하며 정신화를 활용한 치료의 근거를 밝히는 효과성 연구로 확장된다. 그가 보여준 이론적 탐험과 경험적 시도들은 양적 연구와 오랫동안 거리를 두어 온 정신분석학과 정신 역동적 관점의 심리학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라 할 수 있다. Fonagy와 Campbell은 최근 ‘오랜 반목의 재조명: 애착과 정신분석, 2015(Bad blood revisited: Attachment and psychoanalysis, 2015)’ 논문을 통해 정신분석학적 임상 기반이 당면한 현재의 위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정신분석학은 자신의 치료적 과정에 대해 보다 명확한 이해를 입증해야 하는 과제”(237쪽)에 당면해 있으며, 경험적 입증에 대한 현실적 요구를 더 이상 묵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관리 의료 시스템이라는 현실적 압박과 근거 기반 치료의 흐름은 분명 심리 치료와 상담의 다양한 접근과 고유한 작동 방식을 제한하고 단순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와 같은 경험 과학으로서의 압박은 정신분석학과 정신 역동적 관점의 기존 임상 풍토를 쇠신하고, 단순 매뉴얼화되는 심리 치료와 상담의 흐름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기회로 또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이러한 국외의 흐름이 국내에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심리학 영역의 심리 치료와 상담 서비스가 현행 의료 보험 시스템에서 제외되어 있는 국내의 경우, 경험 과학적 압박과 근거 기반 치료의 흐름은 이론과 치료 기법의 수입 및 번역이라는 현실적 조건들에 의해 우회되어 수용되거나 오히려 역행하는 형태로 귀결될 수 있다. 즉, 유입된 이론과 치료 방법에 대한 자체적인 검열이나 경험적 근거에 대한 탐색보다는, 백가쟁명식의 이

론과 치료 기법이 나열적으로 양산될 수 있고, 이러한 양상은 국외의 60-70년대를 풍미한 흐름과 2000년대의 지배적인 흐름이 시간적 경과에 따른 상호 간의 관계가 생략된 채 혹은 가려진 채, 국내 심리 치료와 상담에서 모순적 형태로 공존한다는 (우리 사회의 현대성이 가진 모순적 양상 자체를 닮은 듯한) 사실에서 또한 드러난다.

국외에서 진행되는 경험 과학으로서의 압박과 근거 기반 치료의 흐름은 분명 부정적일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심리 치료와 상담의 튼실한 기반을 장기적으로 강화해야 하는 국내 심리학의 과제는 경험 과학으로서의 엄격성을 스스로 부과해야 한다는 역설적 역할에 놓여 있는지도 모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Fonagy가 정신화 개념을 통해 보여주는 이론적, 경험적 노력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시사점을 던진다. 첫째, 국내에서 이미 주요 경향들로 안착한 애착 이론과 정신 분석학을 다시금 이론적, 경험적으로 연결하는 정신화에 대한 개념적 개관 작업은 국내 심리학과 임상 영역에서의 폭넓은 종합과 적용을 유도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애착이론을 통해 정신 분석학을 경험 과학으로 견인하고자 했던 Fonagy와 그의 작업에 대한 이해는 국내 심리 치료와 상담계가 스스로 경험 과학적 엄밀성의 기준을 부과하고 확립하는 과정을 위한 모델 구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먼저 Fonagy의 정신화 개념 및 애착이론의 수정된 가정을 정신분석학적 전통과의 대비선상에서 조명하고, 정신화 개념을 뒷받침하는 신경생물학적 연구들을 개관한다. 또한 정신화의 조작적 측정 도구라 할 수 있는 성찰 기능 척도의 개관을 통해, 정신화 개념의 연구 및 현실 적용, 나아가 근거 기반 치료라는 최근

흐름에서의 임상적 함의를 탐색한다.

애착 이론과 정신분석과의 조우

애착이론과 정신분석의 경험적 접목

정신분석과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볼 때, 애착이론의 시작과 이후 발전은 모순과 역설적 회귀를 보여준다. Fonagy(2001)가 지적한 대로, 영국 정신 분석학의 주류를 이루던 Klein의 대상 관계적 접근이 유아와 아동의 어둡고 분열된 정신 내적 환상(internal fantasy)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면, Klein에서 수련을 받은 Bowlby의 애착 이론은 전혀 다른 곳, 즉 현실 세계의 유아와 실제 어머니와의 유대(bonding)에 주목하고 있었다. Bowlby의 이와 같은 현실 세계에 대한 강조는 자신이 정신분석학계로부터 축출당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 후 정신분석학과 정신역동적 관점의 교과과정과 텍스트에서 Bowlby와 이후 애착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들은 자취를 찾을 수 없었다(Fonagy, 2015). 이후 정신분석학이 내적 정신세계가 경험적 연구에 의해 밝혀질 수 없음을 강조하며 임상을 중심으로 명맥을 유지해 나갔다면(Fonagy & Campbell, 2015), 애착 이론은 경험적 연구를 중심으로 발달심리학과 임상영역에서 그 위치를 확장해갔다.

이와 같은 긴장과 반목은 흥미로운 곳에서 다시금 접점을 찾게 된다. 먼저, 경험적 연구의 장에서 접점의 결정적인 실마리를 제공해 준 것은 생후 얼마 되지 않은 유아(infant)와 어머니와의 상호 작용을 통해 밝혀진 유아의 놀라운 인지적, 정서적 능력과 관련된 것이었다. 정신역동적 관점에서 있던 Stern(1985)이

유아와 어머니와의 상호 작용, 즉 유아의 대인관계적(interpersonal) 세계에서 자신의 내면 세계와 외부 세계에 대한 지식을 조직하는 주관적 자기(subjective self)의 발생을 보여주었던 바로 그 영역은 애착 이론이 수십 년간 일관되게 관찰해 온 유아-어머니 이자 관계(infant-mother dyad)의 연구 성과가 결합될 수 있는 장소였다. 정신분석적, 정신 역동적 관점의 흐름이 현실적 관계와 관계적 욕구를 수용함으로써 점점에 다다랐다면, 애착 이론의 흐름은 다시금 개인내적(intrapersonal) 요인의 결정적 역할에 주목함으로써 점점에 근접하였다. 이는 애착 이론이 경험적 연구를 통한 반복적 검증과 수정의 작업을 통해 자신의 오랜 가정, 즉 안정 애착 발달의 결정적 대인관계적(interpersonal) 요인으로서의 실제 어머니의 민감성의 역할을 유보하는 것과 맞물려 있다(Beebe et al., 2010; Fonagy & Campbell, 2015, 재인용).

애착 형성에서 개인내적 요인의 역할을 다시금 제기한 Beebe 등(2010)의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주목할 만하며, 그들은 Stern에게 자신들의 연구 성과를 헌정함으로써 애착 이론과 정신 분석 간의 접점을 시사한다. Beebe 등(2010)은 유아와 어머니의 의사소통적 성격을 띤 주의(attention), 감정(affect), 공간적 지향(spatial orientation), 접촉(touch), 대면 시각적(facial-visual) 몰입(engagement) 등의 변인을 유아의 4개월과 12개월에 각각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애착 이론의 전통적 민감성의 가장 대표적 지표라 할 수 있는 (4개월 된) 어머니의 유아에 맞춘 조정(maternal contingent coordination with the infant)은 이후 (12개월) 유아의 애착 유형과 가장 낮은 상관을 보여주었고, 오히려 유아의 자기 컨턴전시(self-

contingency) 그리고 어머니와 유아의 상호작용적 컨틴전시(interactive contingency)가 보다 높은 상관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전통적 애착이론이 수십 년간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양육자의 민감성이 유아의 애착 유형과 이후 발달을 결정짓는다는 기본 가정을 뒤집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애착 이론의 최근 연구 성과들과 관련하여 Fonagy와 Campbell (2015)은 다음과 같이 반문함으로써, 애착 이론의 궤도 수정을 제안한다. “이러한 결과의 어느 것도 사실 우리를 놀라게 하지 않는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지금껏 (그 관계가) 그렇게 간단할 것이라 예상했다는 사실이다”(236 쪽).

애착 이론의 궤도 수정은 Tronick의 상호 조절(mutual regulation) 입장을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가시화된다(Fonagy, 2015). 정신 역동적 관점의 연구자들인 Tronick 등(Beeghly & Tronick, 1994; Tronick & Reck, 2009)은 임신기 약물 사용(substance use) 경력을 가진 혹은 우울증을 겪고 있는 어머니와 유아 간의 상호 작용에 대한 직접적 관찰과 시점 별(moment-to-moment) 분석을 통해 유아와 양육자 간의 상호 조절과 유아 기능의 복구 가능성에 주목한다. 이는 애착 이론이 가정해 온 어머니의 민감한 반응에 따른 유아의 단선적 발달이 아닌, 양자 간의 역동에 따른 상호 조절적 발달을 강조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세 가지의 지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첫째, Tronick의 관점은 Stern의 경험적 연구의 성과물, 즉 생후 며칠 혹은 몇 개월이 채 되지 않은 유아들에게서 발견된 ‘주관적으로 자신과 타자의 경험을 조직할 수 있는 능력’을 바탕으로 구성되었다. 유아와 어머니와의 상호 작용에서 어머니의 양육 행동은 유아

에게 일방적으로 흡수되는 것이 아니며, 유아는 이와 같은 상호 작용 단서를 자기 개념의 생성을 통해 주관적으로 통합하는 개인내적 구조를 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유아의 울음, 웃음, 고통, 눈빛, 주의 등의 단서는 어머니에게 소통적 신호로 접수되며, 이러한 소통 신호의 교환은 단순히 유아의 내적 상황 정보의 교환과 어머니의 이에 상응하는 반응(mirroring or contingent responding)이 아닐 수 있다.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와 같은 단서의 교환은 ‘유아의 내적 조절 상태(regulatory status) 정보의 교환이며, 이에 따른 어머니의 반응과 스스로의 조절 상태를 다시금 교환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상호 조절의 과정이다. 유아의 입장에서 볼 때, 이와 같은 상호 조절의 경험은 관계에 대한, 나아가 사회적으로 혹은 문화적으로 적절한 관계 방식에 대한 계승과 학습이자, 믿고 신뢰할만한 관계 표상의 의미적 생성이다.

마지막으로, Tronick 등(Beeghly & Tronick, 1994; Tronick & Reck, 2009)은 Winnicott(1971)의 적절한 좌절 혹은 적절히 좋은 어머니(good enough mother)라는 가정과 유사하게, 어머니와 유아 간의 의사소통의 실패와 왜곡이 복구의 소통 과정을 통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관계 양식의 학습을 진행시킨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즉, 단순히 원활한 의사소통과 긍정적 의미의 생성만이 아닌, 소통의 실패와 오류 또한 소통을 재개하고 복구하는 과정에서의 재조정을 통해 사회적 관계 학습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정신분석적, 정신 역동적 관점이 표상으로서의 타자를 넘어 실제 타자와의 상호적 관계를 점진적으로 수용하였다면, 최근 애착 이론의 연구(e.g., Beebe et al., 2010)는 애착 이론의 전통적 가정을 넘어 유아의

주관적 자아 형성 과정을 수용하였고, 이들의 접점은 수정된 가설인 상호 조절 개념에서 가시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애착이론과 정신분석의 이론적 접목

정신분석 진영이 관계적 욕구(Mitchell, 1995)라는 개념을 점진적으로 수용하면서 애착 이론의 '실제 어머니'와 '외부 세계'를 향한 향로로의 접근을 허용하였다면, Fonagy 정신화 개념은 애착이론의 발달심리학적 기반에서 최근 경험적 연구 성과를 흡수하는 동시에 애착이론과 Klein 및 이후 대상관계론의 이론적 기반을 연결하는 것이었다. Fonagy는 그의 저서 '애착 이론과 정신 분석'(2001)과 이후 논문들(Fonagy et al., 2002; Fonagy & Campbell, 2015)을 통해 최근 경험적 성과들의 접점들을 연결하고 정신분석과 애착 이론 사이에 소통 가능한 이론적 교량을 정립하고자 시도한다.

Fonagy의 정신화 개념은 먼저 '사고에 대한 사고'(thinking about thinking)로 요약될 수 있다. Bateman과 Fonagy(2006)는 인간 행동을 의도적 정신 상태로 해석하고 수용하게 하는 정신활동을 정신화하기(mentalizing)라고 정의하였고, Allen 등 (2008)은 정신화를 자신과 타인의 행동을 이해하는 능력으로 규정하고, 이와 같은 정신화가 언어 혹은 비언어를 통해 표면화되며, 나아가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주고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신중하게 분석하는데 기여한다고 설명한다. 또한, 정신화 능력은 애착 이론의 오랜 가정에 기반하여 양육자와의 초기 애착관계 내에서 발달하는 것으로 가정되며, 가까운 타인이나 정신적 대리인의 마음상태를 탐색해 보는 경험을 통해 습득된다고 보고된다(Fonagy & Target, 1997).

이와 같은 메타 사고적 수준에서 정의되는 정신화 개념은 심리적 현실(psychic reality), 즉 정신분석학적 전통 내에서 반복적으로 논의되어 온 정신적 표상(mental representation)으로서의 정신 내적 현실의 분석에 빛을 지고 있다. Fonagy와 Target(1996)는 정신화 이전 단계로서 아동의 정신 내적 현실과 지각 양식을 정신적 동등모드(psychic equivalence mode), 가장모드(pretend mode), 목적론적 모드(teleological mode)로 구분하며, 이러한 세 가지 방식들이 정신화 능력으로 통합되는 과정에 주목한다. 이들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과 타자의 생각이나 느낌을 이해할 수 있는 정신화의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실제로 정신화할 수 있는 능력(capacity)은 초기 발달 과정에서 점차 획득되는 것이다.

첫째, 정신적 동등모드에서 유아는 자신의 내적 세계와 외적 세계를 동일한 것으로 여긴다. 이는 2~3세의 유아에게서 흔히 보여지는 현상으로, 그들은 자신의 환상 혹은 꿈이 현실과 동일하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정신적 동등 모드의 기원은 Klein(1946)의 편집 분열 자리(paranoid-schizoid position)에서 찾아볼 수 있다. Klein은 외적 현실과 좌절 혹은 불만의 거울형인 내적 파괴적 충동의 외부로의 투사가 입을 통한 공격성으로 가장 먼저 드러난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파괴적 충동은 처음부터 대상, 즉 어머니를 적으로 돌리고, 입으로 어머니의 가슴을 찢어 내버리는 환상에서 마침내 그녀의 몸을 가능한 모든 가학적 수단을 동원하여 살육하는 것으로 진행된다"(1946, 2쪽)라고 기술한다. 이와 같은 내적 표상으로서의 어머니와 살육의 환상이 지배적인 정신 내적 세계와 좌절을 안겨주는 외부 세계는 유아에게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 아니 보다 정

확하게 말한다면, 내사(introjection)를 통해 형성된 표상된 내적 대상과 투사(projection)를 통해 재구성된 실제 대상은 유아에게 있어 구분할 수 없는 동등한 위치에 놓여있고, 이와 같은 내사와 투사의 끊임없는 반복은 유아가 자신 내부의 공격성을 외부로부터의 핍박과 공격으로 인식하는 환원론적 지각에 원천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Fonagy와 Target(1996)의 두 번째 단계인 가장모드에서는 내적 세계가 외부 현실과 완전히 분리되어있다. 예를 들면 가혹한 현실 환경에 노출된 유아는 감당하기 힘든 현실과 마주하기보다는 자신이 신데렐라의 삶을 사는 것으로 환상(fantasy)을 구축할 수도 있다. 이 환상은 외부 현실과 유리되어 진행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유아에게 있어 가장모드는 유사 정신화에 해당하는 내적상태로서 거짓(lying)과 흡사한 양상을 보이지만 거짓은 상대방의 지식수준을 감안한 조작의 과정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정신적 가장모드와 뚜렷하게 구별된다(Frankfurt, 2005).

이와 같은 가장 모드는 Winnicott(1971)의 중간 현실(transitional experiences)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Winnicott의 관점에서 볼 때, 유아가 내적 현실과 외적 현실의 독립적 존재에 대한 지각으로 나아가는 과정은 놀이(play), 가장(pretending)이라는 과도적, 창조적 공간을 필요로 한다. 이와 같은 공간은 예술과 창조성의 기반으로 작용하고, Winnicott(1971)의 안아주는 혹은 품어주는 환경(holding environment)은 유아의 가장 모드에서의 놀이와 탐색을 지원하며 이후 정신화 단계로의 진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유아기의 가장모드는 양육자와의 애착관계에 기반한 시행착오의 과정을 거쳐 정상적인 정신화

의 과정으로 전환되어 가지만,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 구성적 자기(constitutional self)의 손상과 공허감(emptiness), 무의미함(meaninglessness), 외상(trauma), 나아가 해리(dissociation)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와 같은 가장 모드의 부정적 결과의 양상이 경계선적 성격 장애(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이하 BPD) 혹은 외상으로 인한 혼돈 애착(disorganized attachment)의 전형적 증상과 유사성을 보인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셋째, 목적론적 모드에서 유아는 자신과 타인이 각각의 목표가 있으며 행동은 목적달성을 위한 표현이라고 인식한다. 타인의 행동을 욕망과 계획(plans and projects)의 견지에서 보지 않고 “이렇다면 저래야지(if this then that)”라는 당위성의 전제에서 파악한다. 이러한 정신단계에서는 물리적 변화가 수반되는 행동만이 자신과 타인의 정신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사랑한다면 꽃을 선물한다는 행위가 뒤따를 것으로 생각하며 꽃을 선물한다는 것은 사랑하고 있다는 것으로 간주한다. 목적론적 모드가 문제점을 드러낼 수 있는데, 가령 상처받은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신체적 자해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들이 유아 성찰모드에 이르기 위해서는 대안적 모드의 통합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정신화 모드(mentalization mode)이다. 즉, 정신화는 생각과 느낌의 귀인(歸仁, the attribution of thoughts and feelings)을 통해 자신과 타인의 행동을 의도적 표상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하며, 외적 현실과 정신 내적 현실을 구분하는 정신적 능력으로 통합된다. 그러나 이 세 가지 모드는 시간대별로 발달하는 것은 아니며 정신화 붕괴 시 세 가지 모드 중 한 가지 모드로 퇴행 또는 전환될 수 있다.

가령, 정신적 외상을 입은 유아들은 현실에서 곤란을 겪으며 정신화 이전단계(prementalizing phase)로의 퇴행을 경험할 수 있고, 이 때 정신적 동등모드, 가상모드, 그리고 목적론적 모드 등이 다시금 지배적인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Fonagy & Bateman, 2006).

Klein의 대상 관계적 관점에서 볼 때, 정신화 능력은 내재적으로 존재하는 공격 욕구 (aggression)에 의해 추동되는 편집 분열 자리와 우울자리(depressive position)의 끊임없는 회귀와 반복의 성과물로서, 분열된 좋은 대상과 나쁜 대상 간의 통합적 지각과 온전한 현실 지각 (intact reality testing)으로 재해석될 수 있다. 반면, Winnicott의 대상 관계적 관점에서 볼 때, 정신화는 내재적으로 존재하는 관계 욕구 (relational drive)에 기반하여, 안아주는 환경 내에서 발달한 진정한 자기(true self)라는 성과물로 재해석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신분석적 해석은 상호 조절(Beeghly & Tronick, 1994; Tronick & Reck, 2009) 관점의 수용을 통해 보다 매끄럽게 결합될 수 있다. 정신화는 애착 관계, 특히 상호 조절적 학습을 통해 형성된 인식론적 신뢰(epistemic trust)의 바탕 위에서 정신적 동등 모드, 가상 모드, 목적론적 모드라는 외부 현실과 내부 현실에 대한 탐색의 과정에 의해 진행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과정으로부터의 탈선 혹은 정신화 능력의 미발달은 정신화 이전 단계에서의 지체 혹은 고착에 의해, 환경적 방해로 인해, 정서적 환경에 대한 유전적 민감성에 의해, 혹은 유아와 양육자와의 적합성(fit) 등의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복합적으로 결정된다(Fonagy, 2015).

정신화 개념의 신경생물학적 기반

Fonagy의 정신화 개념은 정신분석학적 전통의 단순한 흡수를 넘어서, 애착 이론의 최근 경험적 성과, 특히 신경학적 연구 결과들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최근 경험적 성과 중, 애착 형성의 사회적 형성, 즉 사회적 바이오피드백(social biofeedback)을 통한 정서 조절(affect regulation) 능력 발달에 관한 연구는 정신화 개념 구성에 큰 영향을 미쳤고, 애착과 유대감 자체에 대한 신경학적 해석은 정신화 개념을 신경학적으로 입증하는 데 이바지하였다.

정서 조절 능력의 발달: 사회적 바이오피드백

Gergely와 Watson(1996)에 따르면 유아는 자신의 감정표현에 대한 부모의 유별난 반응에 예민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적 피드백을 경험하고, 유아 자신의 유형별 감정 상태를 인식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때 경험하는 부모의 정서 미러링(parental affect-mirroring)은 유년기 감정적 자기인식(emotional self-awareness)과 자기 조절(self-control)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Buck(2010)에 따르면 아동은 양육자 또는 타인과의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정서적 자극을 접하면서 스스로는 인식하지 못하는 조건반사적 일차반응(expressive display behaviors)을 보이게 되는데, 이때 그러한 아동의 반응에 대응하여 나타나는 양육자 또는 타인의 반응(feedback)을 통해 아동은 그 경험된 느낌과 욕구를 분류하거나 이해하는 것을 주관적으로 학습하고 체득한다. 사회적 바이오피드백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일컫는 말이다. 그림 1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생성된 정서적 경험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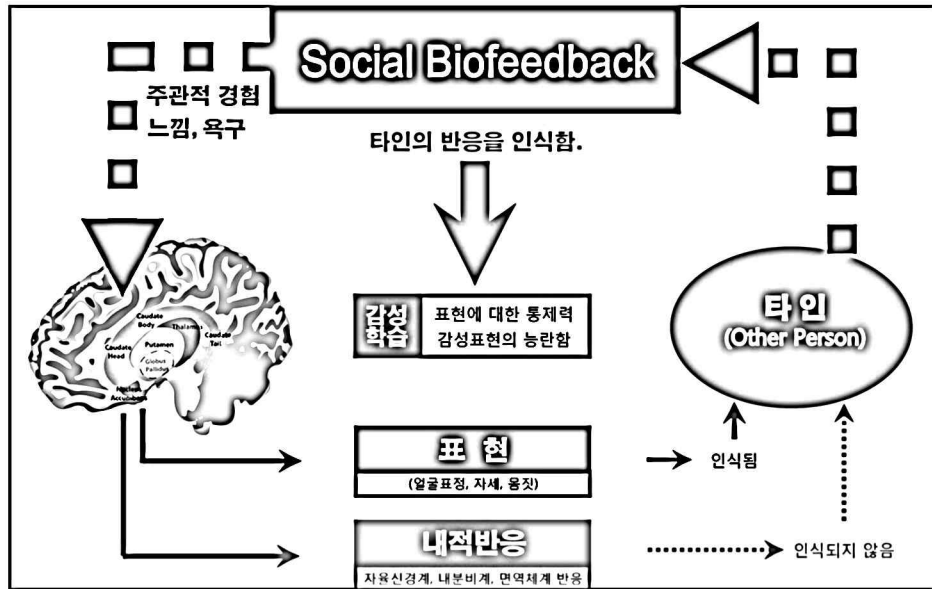


그림 1. 사회적 바이오피드백과 정서적 경험에 대한 학습 (Buck, 2010)

감정 학습을 통해 자아에 내재화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사회적 바이오피드백은 특히 양육자와 유아 사이에 초기 감정 조절 능력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는 유아의 행동을 통해 동적인 감성변화를 소통하고 양육자가 유아의 감성상태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복잡한 생물사회학(biosocial)적 체계의 존재에 대한 반증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생리적 체계는 유아의 정서적 감성학습을 지속적으로 조절 및 규제하는데 기여하며, 유아는 일차적 감성을 2차적인 표현으로 내재화함으로써 자신의 생리적, 정서적 발현을 상황 인식에 맞게 조절하게 된다. Fonagy(2001)는 이와 같은 정서적 감정 학습과 감정 및 행동 조절이 유아와 실제 어머니와의 애착과 상호 관계에서 발달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감정적 알아차림(affect awareness)과 이를 통한 자신의 정서적이고 생리적인 반응의 조절 상태는 다양한 소통적 신

호에 의해 유아와 어머니 사이에서 교환되고, 긍정적 정서와 마찬가지로 부정적 정서 또한 소통의 성공을 통해, 혹은 실패를 복구하려는 소통(Beeghly & Tronick, 1994; Tronick & Reck, 2009)을 통해 상호 조절된다. 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정신화 과정이 애착 관계 내에서 진행되는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정서 및 대인 관계 양식의 사회적 학습이라는 관점을 뒷받침하는 경험적 근거라 할 수 있다.

애착의 신경학적 기제

애착 이론은 이론의 저변에 유아와 양육자의 유대가 학습을 통해 습득되는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내재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이와 같은 애착과 안전기지(secure base)의 역할은 진화론적 입장에서 볼 때 인간의 생존과 지속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조건이며, 그러한 가정은 최근 신경학적 연구를 통해 입증되

고 있다. 양육자가 유아와 유대를 형성하고 안전 기지로서 역할하며 양육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은 도파민 관련 보상 체계(the dopaminergic reward processing system)와 옥시토신 체계(the oxytocinergic system)의 활성화에 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Fonagy, Luyten, & Stratheran, 2011, 재인용). 도파민 관련 보상 체계의 활성화는 배고픔(hunger), 성(sex)과 같은 기본적 욕구와 충족의 과정, 나아가 향정신성 물질의 중독 과정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신경학적 기제라 할 수 있으며(Cartes, 1998), 유아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 행동이 도파민 관련 보상 체계의 활성화와 결부되어 있다는 사실은 실제 어머니와의 애착이 부수적이거나 이차적인 변인이 아닌, 생득적이며 내재되어 있는 조건임을 추론하게 한다.

나아가, 신경활성화 호르몬인 옥시토신의 활성화 체계는 애착 행동과 정신화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 임신기와 분만 직후 산모에게서 급격히 상승하는 옥시토신의 활성화는 어머니가 유아의 얼굴 표정, 움직임, 울음 등에 민감히 반응하며 유아의 정신 상태를 지각하려는 활동의 증가와 높은 상관을 보이며(Stratheran et al., 2009), 반대의 과정, 유아의 증가된 옥시토신 활성화 또한 양육자와의 애착과 높은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Gordon et al., 2008). 양육자와 유아 간 관계만이 아닌, 청소년기 혹은 성인기의 애착 행동 또한 옥시토신의 증가된 활성화와 관련된 것으로 보고된다(Grewen et al., 2005). 옥시토신은 일반적으로 시상하부(hypothalamus)내에서 합성되어 선조체(striatum), 편도체(amygdale), 대상 피질(cingulate cortex) 등의 영역에서 분비되는데, 이와 같은 영역은 감정 및 사회적 행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

으며, 감정과 행동을 통제하고 위기를 감지하며 요구되는 적절한 사회적 행위를 실행하는데 필수적이다(Fonagy et al., 2011 재인용). 옥시토신과 같은 유사한 역할을 남성에게서는 바소프레신이 기능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Caldwell, Lee, Macbeth, & Young, 2008).

즉, 자신의 감정을 지각하고, 타자의 울음, 시선, 표정 등의 사회적 단서를 지각함으로써 타자의 감정과 의도를 이해하는 과정은 유아의 탄생, 양육, 타자와의 애착 형성이라는 폭넓은 애착과 친밀한 대인 관계의 맥락에서 진행되며, 이는 배고픔이나 성과 같은 욕구의 충족과 유사한 보상 체계의 작동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신경학적 근거들은 개인이 정신화의 잠재력을 내재하고 있다는 가정(Fonagy & Target, 1996)을 뒷받침하며, 나아가 환경적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정 애착과 신경 발달의 교란, 애착 행동과 관련한 신경학적 기능을 담당하는 유전자의 변이 및 유전적 취약성 등의 요인들에 의해 정신화 발달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애착 장애로서의 경계선적 성격장애: 경험적/신경학적 근거

Fonagy의 정신화 개념은 영장류와 인간의 사회적 의사소통, 나아가 사회성 장애로서의 자폐증의 이해를 진화론적 관점에서 정식화한 마음 이론(theory of mind)으로부터 영향을 받았고, 자폐증에서 관찰되는 타자의 정신 상태에 대한 지각의 결핍을 BPD 내담자들에게 적용하였다(Choi-Kain & Gunderson, 2008). 경계선적 성격 장애는 일반적으로 불안정한 대인관계, 반복적인 자기 파괴적 행동과 자기정체성의 혼란, 정서의 불안정과 심한 충동성 등의 주

요 증상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 즉, 자기-조절의 역기능이 사회적인 관계의 맥락 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패턴을 보이는 것이다. Gunderson(1996)은 불안정하게 애착된 유아의 과장된 반응을 통해 BPD 역기능의 전형적인 패턴을 설명하는데, 예를 들어 애착대상과의 과도한 집착, 의존 욕구에 관한 두려움, 유기(abandonment)에 대한 공포, 그리고 양육자의 근접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그것이다. 자아/타자 경계의 혼란, 공허감, 충동성, 그리고 이로 인한 사회적 관계 상실에 대한 병리적 반응들은 앞서 설명한 가장 단계를 비롯한 정신화 이전 단계에서의 미완된 발달의 결과, 즉 환경적 조건으로서의 실제 애착 관계, 유전적으로 내재된 환경적 민감성, 혹은 유아와 양육자 간의 적합성 등의 다양한 변인의 복합적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Fonagy, 2015; Fonagy & Campbell, 2015).

애착 이론의 발달심리학적 연구자들은 이러한 다양한 변인 가운데 현실 애착 관계에 보다 많은 관심을 보여 왔고, 유아기의 혼돈 애착(disorganized attachment)과 성인기 BPD 발달의 연관성에 주목해왔다(Fosse et al., 2008; Holmes, 2004; Mosquera et al., 2014). 이는 혼돈 애착에서 보이는 타자와 자기 개념에서의 혼란, 정서 조절 능력의 결핍, 충동성 등의 특징이 성인기 BPD의 증상으로 발달하는 과정을 입증하는 것이었다. 혼돈 애착과 외상 간의 연관성과 관련하여, Fonagy 등(1996)은 BPD를 반복적이고 장기화된 외상 혹은 관계적 외상(relational trauma)에 대한 애착 반응으로 설명한다. 애착 관계는 자아의 감정 지각 및 조절 상태가 타자에게 전달되고, 타자의 반응적 지각과 조절 상태가 상호적으로 교환되는 사회적 관계 양식의 학습이 진행되는 진화론적 장

소이다. 그러나 환경적 조건에 의해 이와 같은 학습은 교란될 수 있다. 가령 장기화된 학대 경험은 애착 관계 형성 자체를 교란하며,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감정을 조절하고 자신의 경험을 일관된 형태로 지각하는 능력의 발달 자체를 저지할 수 있다(Kim, 2010). 또한 관계적 외상(혹은 정서적 환경에 대한 유전적 민감성)에 의한 회피적(avoidant) 혹은 저항적(resistant) 애착 또한 사회적 학습이 진행되어야 할 기회 혹은 장소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다(Fonagy, 2015). 즉 학습이 일어나는 순간인 애착 행동의 교환을 회피하거나 저항하는 양상을 보이는 애착 유형은 스스로의 구조 내에 학습의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낳는 것이다. 그러나 Fonagy(2015)는 이와 같은 애착 유형과 BPD의 대인 관계 패턴이 역기능적으로 작동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적으로 적응적 산물(adjustment)일 수 있음을 강조한다.

BPD의 신경학적 기제에 대한 연구는 현재에도 진행 중이지만, 그들에게서 발견되는 두뇌 활성화의 이상성(abnormality)은 애착 관련 기존 연구 결과들과 일치한다. 초기 외상은 생리학적 각성에 관여하여 신경 기제의 변화를 야기하는데, 각성 체계의 촉발을 준비시키는 후부 대뇌피질(posterior cortex)를 과잉 활성화시키는 반면 전두엽을 비활성화 상태로 유도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Arnsten, 1998). 일반적으로 전두엽은 추상적 사고, 계획과 실행, 목적의식적 활동, 사고에 대한 사고, 주의 집중 등의 의식적 활동의 조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Carter, 1998), 초기 외상과 관련된 BPD에서 보고되는 전두엽 기능의 과소활성화는 정신화에 수반되는 메타사고적 기능과 조절의 결핍을 추론하게 한다.

또한 BPD 내담자들은 자신의 충동을 억제

하고 만족을 지연시키는 장기 지연 전략보다는 단기 보상 전략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최근 동물의 충동성 연구에서 드러난 중뇌의 도파민 관련 보상 체계(mesencephalic dopaminergic reward system: MDRS)와 단기적 보상 선택 간의 관련성에 비추어볼 때, BPD 내담자들의 충동성과 부적응적 대인 관계 양식은 중독 기제와의 유사성을 함축하고 있다(Fonagy et al., 2011, 재인용). 최근 제기되고 있는 논쟁의 하나로서, BPD 내담자들의 애착에 대한 집착을 중독 장애로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는 애착 관계 내에서 학습되는 정서 및 충동성 조절 학습이 배고픔이나 성과 같은 욕구 충족 체계를 관장하는 도파민 관련 보상 체계 내에 있다면, BPD 내담자들의 관계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라는 애착 관련 증상과 중독 메카니즘, 즉 관계에 집착할수록 관계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는 내성(intolerance) 혹은 관계 내에 있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금단(withdrawal) 양상과의 유사성은 간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신화 기능에 대응한 신경학적 활성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전두엽은 의식 활동의 중추로서, 감각피질에서 분석한 자료와 편도체 복합체를 거쳐 들어온 감정적 측면을 바탕으로 다음 행동을 예측, 판단하는 부위로 인간의 성격을 표상하는 영역으로 가정할 수 있다(Carter, 1998). 전대상피질(anterior cingulate cortex)은 정서 상태 영역을 정신화하는데 있어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Frith & Frith, 2003), 전전두피질(prefrontal cortex)의 활성화는 시각과 언어 영역 모두에서의 광범위한 정신화 추론과 결부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Gallagher et al., 2000), 전두엽의 광범위한 영역이 타자의 정신 상태에 대한 내현적 표상이 요구되는 상호적 정신화의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추론하게 한다. 나아가 최근 연구는 전전두피질, 두정-측두 연결(parietotemporal junction), 측두극(temporal pole)의 축이 정신화 기능 작동의 주요 네트워크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Gallagher & Frith, 2003).

또한, 청각 정보의 수용을 담당하는 측두엽(temporal lobe)의 측두엽극(temporal poles)은 행

표 1. 정신화 기능과 관련된 뇌 영역 비교

뇌의 부위	정신화 기능
위측두이랑(superio temporal gyrus)	행동의 의도를 파악
편도체(amygdala)	행동의 감정적 의미를 파악
측두엽극(temporal poles)	행동의 언어적 흐름을 파악
거울뉴런(Mirror Neuron)	관찰된 행동의 인지적 연결(coupling) 및 정서의 반향을 의미
전측뇌이랑(anterior insula)	통증과 혐오감을 관찰하고 경험
전측대상피질(anterior cingulate cortex)	주의력, 인지, 정서상태를 통제
안와전두피질(orbito-frontal cortex)	수반강화(reinforcement contingency)변화의 감시 및 관찰
내측 전전두피질(medial prefrontal cortex)	정신화 기능의 중추 부위 전측대상이랑과 기능 중복

등의 언어적 흐름을 파악하며, 위측두엽이랑(superior temporal gyrus)은 인지 정서조절 네트워크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ohn et al., 2014). 안와전두피질(orbitofrontal cortex)의 병변이나 손상은 일반적으로 보상을 예측하고 평가하는 기능의 손실과 관련되어 있는데, 정서적 불안정과 성격 변화,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행동 등이 보고되고 있다(Rogers et al., 1999). 섬이랑(insula)은 부정적 감정조절 능력과 재평가(reappraisal)에 연관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uhle et al., 2014). 표 1은 위와 같은 정신화 기능을 담당하는 두뇌 영역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다.

정신화의 작동 방식: 유사 개념과의 비교

정신화 개념의 차원

정신화 개념은 애착 이론의 기본 바탕인 실제 어머니와 유아 간의 이자 관계라는 하나의 축에 정신분석학이 강조하는 정신 내적 세계와 표상의 발달이라는 또 다른 축을 결합시켰고, 나아가 최근의 신경생물학적 성과인 적응적 사회적 기능에 요구되는 감정과 인지 조절 과정을 수용하였다. 이와 같은 정신화의 개념은 네 가지의 상이한 차원으로 설명될 수 있다: “자동적-조절된 과정(automatic-controlled), 내재적-외재적 기반(internally-externally based), 자아와 타자의 정신화(mentalizing with regard to self and others), 인지적 측면 대 정서적 측면(cognitive vs. affective) (Fonagy & Campbell, 2015, 238쪽). 이는 정신 내적 현실과 표상으로서의 어머니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강조점과 외적

현실과 실제로서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 이론의 강조점이 정신화 개념 내에서 균형을 이루도록 안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정신화 과정이 전두엽을 매개로 하여 의식적으로 조절된 과정인 동시에, 발달과 애착의 과정에서 개인의 성격과 행동 패턴으로 자동화된 체계일 수 있음을 잘 보여준다. 나아가 이는 정신화 개념이 자아와 타자의 정신 상태에 대한 인지적인 자각만이 아닌, 감정의 지각과 조절이라는 측면을 내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정신화 개념은 현재 심리학 내에 공존하는 수많은 유사 개념들, 가령 메타인지 모니터링(metacognitive monitoring), 마음이론, 공감(empathy), 마음 챙김(mindfulness), 감정 의식(affect consciousness), 심리적 마음자세(psychological mindfulness) 등과 혼동되거나 중첩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유사 개념들과 정신화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하여 개념의 차원과 범위를 규정하는 작업은 정신화 개념의 작동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고, 나아가 이를 측정하고 임상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을 촉진시킬 수 있다.

정신화의 작동 방식: 유사 개념과의 비교

메타인지 모니터링은 내적 심리상태에 대한 생각과 의견을 다루면서 의도적인 사고를 넘는 부분까지를 포괄하는 ‘인식의 인식(cognition of cognition)’이라는 고차원적인 능력으로 정리할 수 있다(Smith et al., 2003). 즉, 자신의 내부에서 작동중인 인지활동에 접근하여 그 과정을 점검, 평가하고 내부적 논리 작동 과정(protocol)을 관찰하여 현재 상태를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멈추거나 다른 방향으로 수정할 것인지 등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외부로 드

러나지 않은 채 진행되는 인지과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분노의 감정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를 가능하게 한다. 이와 같은 인지 능력은 자신의 인식 과정의 자각과 조절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정신화는 자신과 타자 모두의 심리적 상태와 행동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될 수 있다.

마음이론은 자신과 타자가 생각하는 것을 추론할 수 있는 인지 능력의 발달에 초점을 맞추고 자폐증 스펙트럼 등에서 관찰되는 사회적 장애를 설명하는 개념으로, 이후 정신화의 개념적 틀을 직접적으로 제공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Choi-Kain & Gunderson, 2008). 타자의 행동을 예측하고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인 마음이론은 타자와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며 대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능력이다. 진화론적 관점에서 볼 때, 자신과 타자의 마음읽기는 인간의 행동을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회적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라 할 수 있다(Blakenmore et al., 2004). 마음이론은 ‘생각 또는 정서와 같은 마음상태가 행동을 결정한다.’는 개념에서 출발하며, 말과 행동으로부터 타자의 마음을 추론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러한 마음읽기 능력이 대인관계에 필수적인 능력이라고 본다. 마음이론이 사회적 관계 형성에 필수적인 타자의 마음(mind), 즉 사고, 의도, 비언어적 단서 등의 의사소통적인 인지적 요소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면, 정신화는 인지적 차원과 더불어 감정적 차원의 지각과 조절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차별점을 찾을 수 있다.

한편, 공감은 타인의 감정과 입장을 이해하고 적절히 반응하는 능력으로,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는 데 있어 중요한 능력이다. 그러나 공감은 대인관계에서 타인의 감정과 경험을

추측하고 공유하는 심리적 상태에 보다 주목하는 반면, 정신화는 타인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동일한 관심을 갖는다는 차이점이 있다(Allen et al., 2008; Choi-Kain & Gunderson, 2008). 즉, 공감은 정신화 개념과 많은 부분에서 중첩되지만 타자의 사고와 감정에 대한 통찰을 강조하며 의식적인 알아차림 등 보다 외재적인 기능에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정신화와 구별된다(Choi-kain & Gunderson, 2008).

Choi-Kain과 Gunderson(2008)은 정신화를 ① 내면적인 것과 외현적인 것 ② 자신과 타자 ③ 인지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정신화의 작동을 설명하며, 공감, 심리적 마음 자세, 감정 의식, 마음 챙김 개념이 위치하는 부분을 가시적으로 보여 주었다. Choi-Kain과 Gunderson의 정신화 지도(mentalization map)를 기반으로 정서적 자극이 내면적 의식과 외현적 행동으로 형성되는 과정과 정신화의 단계가 그림 2에 도시되어 있다.

관계 속에서 발생한 정서적 자극(an affective stimulus)은 각자의 감정 의식과 심리적 마음 자세를 통해 성찰 기능(reflective functioning)을 작동시키며 이때 형성된 느낌과 생각은 마음 챙김의 과정을 통해 내면적으로 축적되어 무의식 또는 잠재의식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음과 동시에 경험적 오류검증 과정을 겪으며 정신화 체계로 편입된다. 한편, 내면적 성찰은 외현적으로는 인식 혹은 지각(awareness)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즉, 개인의 느낌(feel)은 기분(mood)으로 가시화되며 생각(thought)은 의도(intention)로 드러난다. 이렇게 드러난 기분과 의도는 공감, 무관심 또는 비공감(antipathy), 감각(sensation) 과정이 뒤따르는 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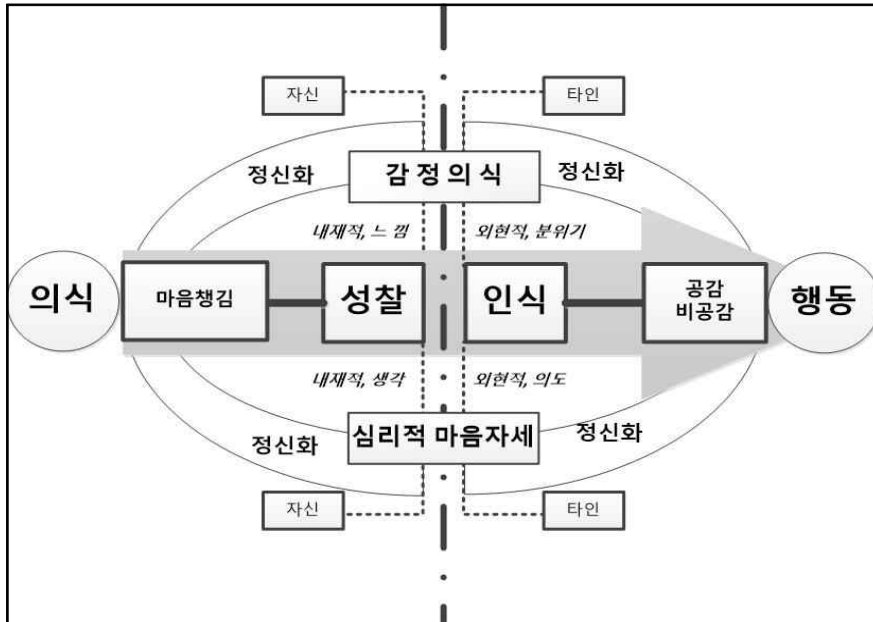


그림 2. 정신화의 작동 메커니즘과 유사 개념과의 관계

동으로 완성된다.

정신화의 측정: 정신화의 조작적 지시체로서의 성찰 기능 척도

많은 애착 이론가들에게서 정신화와 성찰 기능의 개념은 혼용되기도 하지만, 엄밀히 구분해 볼 때 성찰 기능은 정신화할 수 있는 능력을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조작적 지시체(operationalized referent)이다(Fonagy et al., 2002). 다시 말하면, 정신화는 특정상황 또는 특정인물과의 관계 속에서 작동되었던 일련의 성찰기능들이 경험적 오류검증과정을 통해 일관성 있는 패턴으로 인식될 때 당사자의 내면에 각인되고 체화되어지는 성찰의 통계치에 대한 개념적 실체라 할 수 있다.

성인 성찰 기능 척도

성찰 기능의 측정은 애착 이론이 오랜 기간 동안 발전시키고 세련화해 온 성인 애착면접(Adult Attachment Interview: AAI, George et al., 1985)의 분석과정에서 처음으로 착안되었다. Fonagy와 그의 동료들은 성인 애착 면접 응답 분석 과정에서 면접 참여자들이 자신이나 타자의 심리적 상태를 이해하는데 큰 편차를 보인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Fonagy, 1991, Fonagy et al., 1998). 이와 같은 발견은 점차 성찰 기능이라는 독립적 요인을 측정하고자 하는 체계적인 노력으로 발전되어 성인 성찰기능 척도(Adult Reflective Functioning Scale, Fonagy et al., 1998)의 개발로 이어졌다.

성인 성찰 기능 척도는 성인 애착 면접의 응답 내용을 분석하여 성찰 기능 관련한 응답을 코딩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이 척도는 4가

지 기준 ① 심리 상태의 본질에 대한 자각 ② 행동에 기저한 심리상태를 알아내려는 외현적 노력 ③ 심리상태의 발달적 측면에 대한 인식 ④ 면접자와의 관계에 대한 심리 상태에 의거한 질문(예: “부모님이 왜 그런 식으로 행동했다고 생각합니까?”, “아동기의 경험이 당신의 발달과 성격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개인의 진술을 채점한다. 부모의 심리적 정서에 대한 응답자의 경험과 그것이 응답자 자신의 내적 발달에 끼친 영향을 묘사하는 개인의 능력을 평가하는데 부적 성찰기능(-1점)에서부터 뛰어난 성찰기능(9점)까지 11점 척도로 점수가 부여된다(Fonagy et al., 1998). 성찰 기능점수 1은 반영기능 부재, 반영 기능이 거의 없는 자기 중심적 시각을 의미하며, 2는 심리상태에 대한 진부하고 모호한 이해를, 5는 평균적인 기능을, 7은 두드러진 성찰 기능을, 9는 놀라운 통찰과 함께 복잡한 마음 상태에 대한 추론이 가능한 수준을 의미한다.

성인 성찰 척도의 신뢰도는 .94(Fonagy et al., 1998)로 보고되고 있으며, 정신화의 평가와 치료에 있어 중요한 핵심과제로써 심리기능을 조직화하여 드러난 행동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며 초기 경험에 의해 내면화된 애착 도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도구로서 자리잡고 있다. 국내에서는 이미 심영숙(2010)이 성인 성찰 척도를 활용하여 정신화의 의미를 설명한 바 있어 장래 척도로서 활용성을 기대할 수 있다.

요약 성찰 기능 면접

요약 성찰기능 면접(Brief Reflective Function Interview, Rudden et al., 2005)은 이전의 성찰

기능의 검사법에 너무 긴 시간(45~90분)이 소요된다는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애착관계에 대한 성찰만을 가려내어 인터뷰 소요시간을 15~30분으로 단축시켰다. 요약성찰 면접은 AAI와는 다르게, 답변자가 스스로 선택한 부모 중 한 사람(또는 애착관계를 형성했던 다른 인물)과 유년시절에 어떤 관계를 가졌으며 해당 인물과의 유아기 경험이 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현재 부모를 제외하고 자신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에 관하여 대하여 묻는 11가지 질문으로 구성된 인터뷰 방식이다. 인터뷰들은 Main과 Goldwyn(1998)이 개발한 방식(Adult Attachment Scoring and Classification System)에 따라 녹취되었다. BRFI는 높은 내적 일관성($\alpha = .97$)을 보여주었고, 전 항목에 걸쳐 모두 일관적이며 동일한 개념구성체를 측정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아동용 성찰 기능 척도

아동용 성찰기능 척도(Child Reflective Function Scale, Target et al., 2001)은 성인 성찰 기능 척도를 모델로 하여 어린이들의 성찰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어린이 애착 면접(the Child Attachment Interview: CAI, Shmueli-Goetz et al., 2008)에서 작성된 녹취록을 사용하여 등급이 매겨진다. Ensink 등 (2013)의 아동용 성찰 기능 척도를 활용하여 연구를 기획하여, 어머니와 아동으로 이루어진 94쌍의 참가자들로 진행되었는데 자신과 타인에 관한 성찰기능 뿐만 아니라 일반적 성찰기능에서도 아동용 척도가 신뢰할 만한 급내상관계수(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제공하는 것이 드러났다. 성적 학대를 받았던 아이

들과 통제 그룹 간에는 성찰기능에 있어 현저한 차이점이 나타나 이것으로 아동용 척도의 판별 타당도가 입증되었다. 양육자와 아동의 성찰기능은 서로 연관되어 있었으며 학대경험과 양육자의 성찰기능 두 가지 모두 아동의 성찰 기능을 예측했다.

청소년용 성찰기능 설문

아동용 성찰 기능 척도는 성찰 기능 측정에 타월하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소요시간이 길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었다. 청소년용 성찰기능 설문(Reflective Function Questionnaire for Youths, Sharp et al., 2009)은 청소년용 성찰 기능 설문은 이러한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청소년 피검자는 성찰기능에 관해 서술된 지문에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6점 리커트 척도(강한 부정~강한 긍정)로 응답하고, 8개 항목을 역 채점한 후 총 점수를 계산한다. 하위척도인 척도A와 척도B는 각각 23항목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척도A에서는 극단적인 답변(“strongly disagree” 또는 “strongly

agree”)에는 낮은 점수(2점)가, 최적의 답변(“agree somewhat” 또는 “disagree somewhat”)에는 높은 점수(6점)가 배점되고 척도B에서는 높은 성찰기능에 높은(6) 점수가 배점되는데, 설문 응답에 소요되는 시간이 짧고 수월하여 청소년들에게 효율적인 설문으로 알려졌다.

성찰기능의 등급은 심리상태 관점에서 본인과 타인을 표현하는 6가지 요점에 기반하고 하고 있으며 성찰기능 등급이 1점~9점으로 되어있는 11점 다면적 차원 척도(11-point Dimensional Scale)로 코딩된다. -1은 성찰적이지 않음, 혹은 적대적이고 기이한 반응을 의미하고, 4점 이하는 손상된 성찰 기능, 5~6점은 일반적인 성찰기능, 7점 이상은 높은 성찰기능을 의미한다. 2개의 하위척도 중, 자신이해 척도는 흥분한 상태에서의 자기표현과 반응을 이끌어내는, CAI에 있는 4개 항목으로부터 산출되었다. CAI에서 청소년 대상자들은 세 단어로 자신을 표현하고 왜 그렇게 표현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사례를 들어야 하는 질문에서 답변된 사례에 따라 아래 표에서와 같이 1점~9점으로 평가되었다. 또 다른 하위척도인

표 2. 성찰기능 척도

척도	(연도)	연구자	(대상) 소요시간	문항수 신뢰도
성인 성찰기능 척도 (ARFS)	(1998)	Fonagy et al	(성인) 45~90분	(15 면접문항) .94
요약 성찰기능 면접 (BRFI)	(2005)	Rudden et al	(성인) 15~30분	(11 면접문항) .97
아동용 성찰기능 척도 (CRFS)	(2001)	Target et al	(아동) 40~50분	(15 면접문항) .94
청소년용 성찰기능 설문지(RFQY)	(2009)	Sharp et al.,	(청소년) 20~30분	(46 설문문항) .92

타인 이해척도는 아이들의 애착관계 인물과의 관계 그리고 화가 났을 때 혹은 언쟁할 때 그 애착관계 인물의 반응을 묘사하는 총 9항목으로 구성되어있다. 표 2는 성찰 기능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들의 소요 시간, 대상, 신뢰도 값들을 요약하고 있다.

부가적으로, 성찰 기능 척도들의 타당화에는 앞서 설명된 바 있는 AAI, CAI를 비롯하여, 유사 관련 개념을 측정하고 있는 기본 공감 척도(Basic Empathy Scale: Jolliffe & Farrington, 2006), 아동용 경계선적 성격장애 척도(Borderline Personality Features Scale for Children, Crick et al., 2005), 사회적 인식 측정을 위한 동영상 척도(the Movie for the Assessment of Social Cognition, Dziobek et al., 2006), 아동의 눈검사(Child Eyes Test, Baron-Cohen et al., 2001) 등이 폭넓게 활용되었다. 그러나 Choi-Kain와 Gunderson(2008)의 지적에 따르면, 성찰 기능 척도들의 내적 일관성은 대부분 높게 보고되고 있으나, 재검사법에 의한 신뢰도 연구가 부재하여 추가적 연구가 요구된다.

임상적 함의 및 논의점

Fonagy가 정신화 개념을 통해 보여주는 이론적이며 경험적인 모험과 탐구는 애착 이론과 정신분석학과의 조우에서 출발하여 최근 경험적, 신경생물학적 연구 결과의 섭렵을 통한 애착 이론의 수정, 수정된 가설에 대한 검증과 재검증, 이를 경험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척도의 개발, 정신화를 기반으로 한 치료 매뉴얼의 개발 (Fonagy & Bateman, 2004), 정신화 치료의 효과성 검증(Giedd, 2003; Pedersen et al., 2012; Rossouw & Fonagy, 2012)에 이르기까

지 방대하기 이를 데 없다. 그의 이와 같은 부단한 노력은 우리로 하여금 서로 배타적으로 성장해 온 두 진영, 정신분석학과 애착 이론의 접점을 이론과 경험적 연구의 영역에서 보다 쉽게 확인하고 이를 폭넓게 적용할 수 있게끔 한다.

먼저, 애착 이론의 수정된 가설인 상호 조절과 이의 경험적 추적은 임상 영역에서의 오랜 숙제를 해결하고자하는 노력이라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애착 이론적(혹은 후기 대상 관계적) 관점을 기반으로 양육자의 민감성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사례 개념화는 내담자의 유전적, 혹은 생물학적 기반을 간과하거나 환경에 대한 유전적 민감성을 고려하지 않는 단순화와 오해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호 조절 메커니즘에 대한 경험적 연구 결과는 과거 애착 이론과 정신분석학적 관점의 단순 기계적 적용을 넘어, 정신 내적 현실과 외부 현실 간의, 유전적 취약성과 환경 간의, 유아와 실제 어머니 간의 역동적 상호 조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이는 임상과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의 유전적 소인, 환경적 맥락, 유아와 양육자 간의 기질적 적합성(fit), 환경 지각의 유전적 민감성 등의 다양한 변인에 대한 고려가 사례 개념화 및 상담 계획의 수립에 효과성과 정밀성을 높여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정신분석과 같이 개인 내적 경험을 중요시하는 이론과 치료 방법은 현실에서 그 내용을 경험적으로 양화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가령, 자아기능(ego functioning)과 같은 지표는 임상 장면에서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적 지표로 전환하기 어렵다.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할 때,

Fonagy의 정신화와 이를 조작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개념으로서의 성찰 기능, 나아가 척도의 개발은 임상 현장과 질적 연구를 담당하는 연구자들에게 활력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정신화 능력 발달의 바탕이 되는 애착 관계에 대한 신경생물학적 이해는 BPD 내담자를 비롯한 사회적 관계 형성에서의 충동성 및 정서 조절의 실패를 경험하는 청소년 및 성인 내담자의 사례 이해와 상담 계획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가령, 정신화 기반 치료(Mentalization-Based Therapy, Fonagy, 2004)가 보여준 성과를 국내의 상담과 치료에 적극적으로 적용해볼 필요가 있다. 국외 연구에 따르면, 자해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정신화 기반 치료는 참여자들의 자해와 우울 증상을 감소시키고, 성찰 기능과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회복력(resilience)을 강화하였다(Rossouw & Fonagy, 2012; Choi-Kain & Gunderson, 2008, 재인용). Twemlow 등 (2005) 또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정신화 이론에 근거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공감적인 환경조성과 비폭력적 대응방식으로 학교폭력의 예방과 학업성적의 향상이라는 결과를 얻었다고 보고하였다. 국내에서도 오미애 등(2014)이 정신화 이론에 근거하여 소설 속의 인물을 분석하고 정신건강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것을 시도하였고, 오소영 등 (2012)은 정신화 이론을 접목한 학교 정신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한 바 있는데, 이와 같은 노력은 현장을 중심으로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Fonagy가 보여준 이론적, 경험적 노력은 국내 심리학의 장기적 발전에 대한 모델로서 작용할 수 있다. 경험 과학으로서의 압력은 개인 심리 과정의 고유성과 복잡성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반면, 경험적 연구 결과를 섭렵하면

서 자신의 가정을 끊임없이 검증하고 수정하려는 과학적 엄밀성의 강화로 귀결될 수도 있다. 국내의 상담 이론과 치료가 경험적 과학으로서의 엄밀성보다는 외국의 이론과 치료 방법을 유입하는 경로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현실적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국외의 경우와 반대급부의 조건을 강화함으로써 장기적 토대 형성을 준비해야 한다는 역설을 선택하도록 종용할 수 있다. 즉, 우리에게 다양한 이론과 치료 방법을 경험적 검증이나 적합성의 고려 없이 적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다면, 단기적 보상이 아닌 장기적 보상을 위해 스스로를 규제하고 검증하는 내적 규준을 부가하고 강화하는 작업이 오히려 국내 심리학계의 장기적 발전을 도모하는 밑거름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 심영숙 (2010). 성찰기능과 정신병리의 관계: 외상과 악몽을 중심으로.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오소영, 문수진, 이원혜, 홍민하, 민정원, 김봉석, 황준원, 우이혁, 반건호 (2012). 단축형 청소년 정신화 프로그램의 학생정신건강 증진효과 평가, 대한소아청소년 정신의학회, 23(3), 117-126.
- 오미애, 박찬민, 이연정, 홍민하, 한주희, 오수현, 박준현, 반건호 (2014). 정신화 이론에 근거한 청소년기 자해행동의 분석: ‘캐주얼베이컨시’의 Sukhvinder 중심으로, Psychoanalysis, 25(1), 24-32.
- Allen, J. G., Fonagy, P., & Bateman, A. W. (2008). *Mentalizing in clinical practice*. Arlington:

- American Psychiatric Publishing.
- Arnsten, A. F. T. (1998). The biology of being frazzled. *Science*, *280*, 1711-1712.
- Baron-Cohen, S., Wheelwright, S., & Hill, J. (2001). The 'Reading the Mind in the Eyes' test revised version: A study with normal adults, and adults with Asperges syndrome or high-functioning Autism.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2*, 241-252.
- Bateman, A., & Fonagy, P. (2006). *Mentalization-based treatment for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A practical guid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Beebe, B., Jaffe, J., Markese, S., Buck, K., Chen, H., Cohen, P., et al. (2010). The origins of 12-month attachment: A microanalysis of 4-month mother-infant interaction. *Attachment & Human Development*, *12*, 1-135.
- Beehly, M., & Tronick, E. (1994). Effects of prenatal exposure to cocaine in early infancy: Toxic effects on the process of mutual regulation.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15*(2), 158-175.
- Blakemore, S. J., Winston, J., & Frith, U. (2004). Social cognitive neuroscience: Where are we heading? *Trends in Cognitive Sciences*, *8*, 216-222.
- Blatt, S. J., Ford, R. Q., Berman, W., Cook, B., & Meyer, R. (1988). The assessment of change during the intensive treatment of Borderline and Schizophrenic young adults. *Psychoanalytic Psychology*, *5*, 127-158.
- Buck, R. (2010). Emotion is an entity at both biological and ecological levels: The ghost in the machine is language. *Emotion Review*, *2*(3), 286-287.
- Buhle, J. T., Silvers, J. A., Wager, T. D., Lopez, R., Onyemekwu, C., Kober, H., et al. (2014). Cognitive reappraisal of emotion: A meta-analysis of human neuroimaging studies. *Cerebral Cortex*, *24*, 2981-2990.
- Cartes, C. S. (1998). Neuroendocrine perspectives on social attachment and love. *Psycho Neuroendocrinology*, *23*(8), 779-818.
- Caldwell, H. K., Lee, H. J., Macbeth, A. H., & Young, W. S. (2008). Vasopressin: Behavioral roles of an "original" neuropeptide. *Progress in Neurobiology*, *84*(1), 1-24.
- Choi-Kain, L., & Gunderson, J. (2008). Mentalization: Ontogeny, assessment, and application in the treatment of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65*(9), 1127-1135.
- Crick, N. R., Murray-Close, D., & Woods, K. (2005). Borderline personality features in childhood: A short-term longitudinal study.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17*, 1051-1070.
- Dziobek, I., Fleck, S., Kalbe, E., Rogers, K., Hassenstab, J., Brand, M., et al. (2006). Introducing MASC: A movie for the assessment of social cognition. *Journal of Autism and Developmental Disorders*, *36*(5), 623-636.
- Ensink, K., Target, M., & Oandasan, C. (2013). *Child reflective functioning scale scoring manual: For application to the child attachment interview*. Unpublished manuscript, Anna Freud Centre/ University College London, London, UK.
- Fonagy, P. (1991). Thinking about thinking: Some clinical and theoretical considerations in the

- treatment of a Borderline patient,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72(4), 639-656.
- Fonagy, P. (2001). *Attachment theory and psychoanalysis*. New York: Other Press.
- Fonagy, P. (2015). Mutual regulation, mentalization, and therapeutic action: A reflection on the contributions of Ed Tronick to developmental and psychotherapeutic thinking. *Psychoanalytic Inquiry*, 35(4), 355-369.
- Fonagy, P., & Bateman, A. (2004). *Psychotherapy for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Mentalization based treatmen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Fonagy P., & Bateman, A. (2006). Mechanisms of change in mentalization-based treatment of BPD.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62(4), 411-30.
- Fonagy P., & Campbell C. (2015). Bad blood revisited: Attachment and psychoanalysis, *British Journal of Psychotherapy*, 31(2), 229-250
- Fonagy, P., Gergely, G., Jurist, E., & Target, M. (2002). *Affect regulation, mentalization, and the development of the Self*. New York: Other Press.
- Fonagy, P., Luyten, P., & Strathearn, L. (2011).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mentalization, and the neurobiology of attachment.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32(1), 47-69.
- Fonagy, Steele, Steele, & Target (1998). *Parental development interview, addendum to reflective functioning scoring manual*. Unpublished manuscript, City College of New York, New York, NY.
- Fonagy, P., & Target, M. (1996). Playing with reality: I. Theory of mind and the normal development of psychic reality.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77, 217-234
- Fonagy, P. & Target, M. (1997). Attachment and reflective function: Their Role in self organization.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9(4), 679-700.
- Fosse, X., Monestes, J. L., & Bakhache, B. (2008). Disorganized attachment and genetics in the development of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European Psychiatry*, 23, S94-S94.
- Frankfurt, H. (2005). *On bullshi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 Frith, U., & Frith, C. D. (2003). *Development and neurophysiology of mentalising*. *Biological Sciences*, 365(1522), 1345-1350.
- Gallagher, H. L., Happe, F., Brunswick, N., Fletcher, P. C., Frith, U., & Frith, C. D. (2000). Reading the mind in cartoons and stories: An fMRI study of "Theory of Mind" in verbal and nonverbal tasks. *Neuropsychologia* 38, 11-21.
- Gallagher, H. L., & Frith, C. D. (2003). Functional imaging of "Theory of Mind." *Trends in Cognitive Science*, 7, 77-83.
- George, C., Kaplan, N., & Main, M. (1985). *The adult attachment interview*. Unpublished protocol (3rd eds.),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CA.
- Gergely, G., & Watson, J. S. (1996). The social biofeedback theory of parental affect-mirroring: The development of emotional self-awareness and self-control in infancy. *International Journal of Pyscho-analysis*, 77, 1181-1212.
- Giedd, Jay N. (2003). The anatomy of mentalization: A view from developmental Neuroimaging. *Bulletin of the Menninger Clinic*,

- 67, 132-142.
- Gordon, I., Zagoory-Sharon, O., Schneiderman, I., Leckman, J. F., Weller, A., & Feldman, R. (2008). Oxytocin and cortisol in romantically unattached young adults: Associations with bonding and psychological distress. *Psychophysiology*, 45(3), 349-352.
- Grewen, K. M., Girdler, S. S., Amico, J., & Light, K. C. (2005). Effects of partner support on resting oxytocin, cortisol, norepinephrine, and blood pressure before and after warm partner contact. *Psychosomatic Medicine*, 67(4), 531-538.
- Gunderson, J. G. (1996). The borderline patient's intolerance of aloneness: Insecure attachments and therapist availability.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3(6), 752-758.
- Holmes, J. (2004). Disorganized attachment and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A clinical perspective. *Attachment & Human Development*, 4(2), 181-190.
- Jolliffe, D., & Farrington, D. P. (2006).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basic empathy scale. *Journal of Adolescence*, 29(4), 589-611.
- Kim, E. Y. (2010). An activating mechanism of aggressive behaviour in disorganised attachment: A moment-to-moment case analysis of a three-year-old. *Journal of Child Psychotherapy*, 39(2), 152-167.
- Klein, M. (1946). *Envy, gratitude, and other works*. New York: The Free Press.
- Kohn, N., Eickhoff, S. B., Scheller, M., Laird, A. R., Fox, P. T., & Habel, U. (2014). Neural network of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An ALE meta-analysis and MACM analysis. *Neuroimage*, 87, 345-355.
- Main, M., & Goldwyn, R. (1998). *Adult attachment rating and classification system*. Unpublished manual,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CA.
- Mitchell, S. A., & Black, M. J. (1995). *Freud and beyond*. New York: Basic Books.
- Mosquera, D., Gonzalez, A., & Leeds, A. M. (2014). Early experience, structural dissociation, and emotional dysregulation in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The role of insecure and disorganized attachment.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and Emotion Dysregulation*, 1, 1-8.
- Pedersen, A., Koelkebeck, K., Brandt, M., Wee, M., Kueppers, K. A., & Kugel, H. (2012). Theory of mind in patients with Schizophrenia: Is mentalizing delayed? *Schizophrenia Research*, 137, 224-229.
- Rogers, R. D., Everitt, B. J., & Baldacchino, A. (1999). Dissociable deficits in the decision-making cognition of chronic amphetamine abusers, opiate abusers, patients with focal damage to prefrontal cortex, and tryptophan-depleted normal volunteers: Evidence for monoaminergic mechanisms. *Neuropsychopharmacology*, 20, 322-339.
- Rossouw, T. I., & Fonagy, P. (2012). Mentalization-based treatment for self-harm in adolescents: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Journal of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51(12), 1304-1313.
- Rudden, M. G., Milrod, B., & Target, M. (2005). *The brief reflective functioning interview*. New York: Weill Cornell Medical College.
- Ryan, E. R., & Bell, M. D. (1984). Changes in object relations from psychosis to recovery.

-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3, 209-215.
- Sharp, C., Williams, L. L., Ha, C., Baumgardner, J., Michonski, J., & Seals, R. (2009). The development of a mentalization-based outcomes and research protocol for an adolescent inpatient unit. *Bulletin of the Menninger Clinic*, 73(4), 311-338.
- Shmueli-Goetz, Y., Target, M., Fonagy, P., & Datta, A. (2008). The child attachment interview: A psychometric study of reliability and discriminant validity. *Developmental Psychology*, 44, 939-956.
- Smith, J. D., Shields, W. E., & Washburn, D. A. (2003). The comparative psychology of uncertainty monitoring and metacognition. *Behavior and Brain Sciences*, 26, 317-373.
- Stern, D. N. (1985). *The interpersonal world of the infant: A view from psychoanalysis and developmental psychology*. New York: Basic Books.
- Strathearn, L., Mamun, A. A., Najman, J. M., & O'Callaghan, M. J. (2009). Does breastfeeding protect against substantiated child abuse and neglect? A 15-year cohort study. *Pediatrics*, 123(2), 483-493.
- Target, M., Oandasan, C., & Ensink, K. (2001). *Child reflective functioning scale scoring manual: For application to the child attachment interview*. Unpublished manuscript, Anna Freud Centre/ University College London, London, UK.
- Tronick, E., & Reck, C. (2009). Infants of depressed mothers. *Harvard Review of Psychiatry*, 17(2), 147-156.
- Twemlow, S. W., Fonagy, P., & Sacco, F. C. (2005). A developmental approach to mentalizing communities: II. The peaceful Schools project. *Bulletin of the Menninger Clinic*, 69(4), 282-304.
- Winnicott, D. W. (1971). *Playing and reality*. London: Routledge..
- 1차원고접수 : 2015. 11. 05.
수정원고접수 : 2016. 02. 26.
최종게재결정 : 2016. 03. 23.

Revisiting Attachment Theory and Psychoanalysis: Clinical Implications of Empirical Findings and Measurement of Mentalization

Hye-Myong Cha

Eun-Young Kim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From the perspectives of psychoanalysis, the development of the attachment theory has been paradoxical in itself. Bowlby's theory of attachment has been initially derived from the Kleinian psychoanalytic tradition focused on 'internal world' and 'mother as a representation.' However, it has been detached from its origin and found its place within empirical tradition of social science with developmental psychology concentrating on 'external world' and 'real mother,' and further developed into more empirical tradition in the field of psychology. Interestingly enough though, Fonagy representing modern attachment theory stresses the fact that the series of empirical studies on attachment have been reversed its academic trajectory, through rounds of revisions, back to 'internal world.' Fonagy's attempt to reestablish ties between the two academic trends shows its effort clearly in his concept mentalization stemming from the idea of evolution. This study looks into 'mutual regulation' that is a revised hypothesis of mentalization and attachment theory in relation to the psychoanalytic tradition, and reviews current neurobiological finding on attachment and mentalization. Lastly, this study covers various operational measurement schemes of mentalization and discusses clinical implications of mentalization in the contexts of evidence-based treatment and of South Korean.

Key words : *Mentalization, Reflective Function, Attachment Theory, Psychoanalysis, Mentalization-based Treatment*